

새로 나온 詩集

팔할이 바람

徐廷柱 지음

시단의 원로 미당선생이 담시로 엮은 자서전. 어렸을 때부터 70의 고회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을 52편의 구수한 발라드에 담았다. 고회가 되어 비로소 돌아본 생이 기실 '팔할이 바람'이었다고 고백하는 노시인의 남다른 감회가 시편마다 고스란히 배어 있다. 미당 특유의 독특한 감성과 남도가락에 실은 해학을 맛볼 수 있다.

혜원 / A5신 / 223면 / 3000원

말없이 보낸 겨울하루

박상천 지음

간결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말투로 일상성으로부터의 초월을 회구하는 시편들. 현실의 척박한 삶을 극복하면서 우리 삶의 궁극적 의미 탐구에 시선이 집중돼 있다. 몇몇 작품들은 형태파괴의 시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평이한 어조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현실적 조건에 대한 성찰이 궁극에 대한 관심과 이어져 있는 것이 강점.

동지 / B6신 / 122면 / 2000원

반시대적 고찰

박남철 지음

독특한 우상파괴적 상상력으로 80년대 벽두의 시단을 강타했던 시인의 두번째 시집. 첫시집에서 시도했던 형태파괴가 한층 논리 정연한 사회학적 상상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독자들의 시에 대한 선입관에 도전하면서 현실의 억압과 불만족스러운 나날의 삶을 철저하게 회화화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젊은 시인의 고뇌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한겨레 / B6신 / 141면 / 2500원

짚레꽃 하얀 꽃잎

정안면 지음

현재 포항제철에 근무하고 있는 시인의 첫시집. 80년5월의 광주를 통과하면서 젊은 가슴에 얽히고 설키면서 앙금처럼 남아 있던 정한과 투쟁, 그리고 사랑을 서정적으로 묘화한 시집. 노동현실 속에서 '5월'을 투시해내는 그의 시적 성실성은 80년대는 '시의 시대'라는 수사적 표현을 실제적인 표현으로 전취해내는데 한몫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예원 / B6신 / 152면 / 2000원

高銀全集1.2

고은 지음

청하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은전집」 1·2권이 나왔다.

1권은 「彼岸感性」「海邊의 韻文集」「濟川歌集」 세권의 시집을 묶은 것으로 시인이 승려 생활과 환속 이후에 제주도에서 보낸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엮어낸 허무주의적 감성의 세계를 유려하게 보여준다.

2권은 장시모음집인데 「短詩集」은 삶에 대한 따뜻한 이해를 보여주며 「大陸」은 우리 겨레가 걸어온 가시밭길을 웅장한 대하서사시로 펼쳐 보여주고, 「死刑」「니르바나」는 각각 예수와 석가의 삶을 통해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구도자의 모습을 제시한다.

지금은 실천적 민중시인으로 변신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 시인의 초기 시세계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대단히 호흡이 길고 관심의 영역이 광대한 것이 특징.

청하 / A5신 / 248면 · 356면 / 3500원 · 4000원

불이 있는 몇개의 풍경

양애경 지음

8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여자시인의 첫시집. 순수에 대한 열망과 그 열망을 차단하고 배반하는 현실과의 예각적 대립을 보여준다. 깔끔하고 정제된 언어로 주변의 일상적 체험을 산뜻하게 노래한 시편들과 현실의 어둠과 고통을 알레고리의 형식을 빌어 형상화한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삶은 결국 '집행유예일 뿐'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청하 / B6신 / 144면 / 2000원

도계행

金世潤 지음

8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도계행」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시인의 첫시집. 기독교적 사유를 바탕으로 깔고 근원적인 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 도처에 산재해 있는 신을 찾아나서는 구체적 순례행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시적 개성이 있다. "네 생의 가시나무에 / 자갈히 살이 찢겨나갈 때"처럼 강렬한 이미지를 구사하고 있다.

문학세계사 / B6신 / 118면 / 2000원

포가락지

洪又溪 지음

젊은 시인으로서 보기 드물게 토속적 정

서에 맥을 대고 있는 시인의 첫시집. 말씨를 비롯하여 발상·패턴·리듬 등이 한결같이 예스러움과 촌스러움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난한 삶과 전통적 정한의 세계를 흥겹게 노래함으로써 공감을 얻고 있다. 힘없이 살다간 외로운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음영이 잘 드러나 있다.

현대문학사 / B6신 / 145면 / 2000원

우리들의 숲

윤정선 지음

단국대 불문과 교수이며 희곡, 소설, 평론, 시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저자의 첫시집. 곁이 고운 언어로 자신의 내면상태와 '먼곳을 향한 동경'을 詩化하고 있다. 처절할만큼 혹독한 자기성찰, 나약한 존재의 무상함, 그런 존재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려는 꿈 등을 서정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삶에 대한 찬탄과 회의가 공존하는 시세계를 보여준다.

문학세계사 / B6신 / 117면 / 2000원

슬픈 우리 젊은 날

대학가 익명詩 모음

서울에 있는 대학가의 익명시 208편을 수록했다. 대학내 씨클이나 대학촌의 카페, 학생회관의 벽 등에 써져진 시들이 대부분. 개중엔 낙서의 수준을 못벗어난 작품들도 더러 눈에 띄지만 분칠하지 않은 젊음의 싱싱한 육성을 들을 수 있다. 「아직도 혁명을 꿈꾸는 가」「목마른 것은 싫다」「재미있는 세상」 등 재치와 풍자, 정열이 넘쳐흐른다. 문학평론가 백승철의 해설 「청렬한 젊은 날의 초상」이 수록돼 있다.

오늘 / B6신 / 144면 / 2000원

외제 도끼에 찍힌 땅 구두 속에 갇힌 맨발의 목시록

李哲範 지음

5·60년대 대표적 시인이자 평론가로 활동했던 저자가 70년대 주로 미국에서 발표했던 시들을 두권의 시집에 담았다. "유신체제하 자유와 민주주의와 통일의 염원을 위해 싸운 모든 이에게 바친다"는 헌사처럼 정치적 억압에 맞서 싸운 조국의 동포들에 대한 애정이 절절이 넘쳐흐르고 있다. 거칠고 단순하지만 힘이 있는 시들이다.

종로서적 / A5 / 100면내외 / 각권2000원

언어 밖의 세계

박덕규 외 지음

80년대 지속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시동인 「시운동」 제11집. 상상력의 자유를 강조하는 젊은 시인들의 시세계를 대할 수 있다. 발랄한 도시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장정일·박상우, 추억과 현실의 미묘한 삼투현상을 파고드는 정화진, 현실의 중압에 허덕이는 일상인의 고뇌를 보여주는 이문재 등 다양한 경향이 화음을 이루고 있다.

창백 / A5신 / 218면 / 2500원

넘이시여

국효문 지음

차분하게 자신의 시세계를 산져나가는 여류시인의 두번째 시집. 여성적인 순수서정의 미학에서 출발하여 불교적 화해와 사랑의 세계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이 펼쳐져 있다. 광주사태의 아픔을 다룬 시에서도 이 시인 특유의 상징성이 절게 드리워져 있으며 선부른 래디칼리즘을 거부하고 있다. 진지한 자아탐구와 서정적 목소리를 대할 수 있는 시집.

현대문학 / B6신 / 122면 / 2000원

그대에게 나 깨어날 때

채혜주 지음

6살때 결핵성 관절염에 걸려 22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저자가, 자기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발견한 승화된 사랑을 엮어 펴낸 시집. 고통에서 자라난 진한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삶을 향한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다. 아픔이 곧 생활인 삶을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작은 사랑을 믿고 꿈꾸고 있다. 소박하고 맑은 심성이 돋보인다.

범우사 / B6신 / 122면 / 2000원

꽃산 가는 길

김용택 지음

우리시대의 탁월한 농촌시인 김용택의 세번째 시집. 그의 시는 농민의 고단한 일상이나 더이상 빼앗길 것도 없는 농촌현실에 대한 분노를 터뜨릴 때조차 어떤 엄숙함을 잃지 않는다. 그 엄숙함은 흙과 더불어 씨뿌리고 거뒀들이면서 노동하는 삶의 의미를 체득한 자의 엄숙함이다. 적절히 사투리와 비유에 실린 풍자와 해학이 농민사실적인 가락을 타고 오늘의 민중정서를 구현하고 있다.

창작과비평사 / B6신 / 185면 / 2200원